즉문즉설④

부처님 가피(구원)는 있는 것인가?



그럼 당신은 길에서 환우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건지 출가자로서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오래전 서울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규모가 있는 큰 절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온다.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자 한다. 몇 번 연락이 와서 여기 학장스님과 같이 그 사찰을 찾아갔는데 주지스님이 여기 보이는 이 산중 전체가 절 소유란다.

차를 한잔 하면서 소납이 바로 얘기를 꺼냈다. "혹시 현대불교신문(2016.2.24.일자 한국불교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합시다)를 보셨습니까?" 하고 묻고는 "이 신문을 두고 갈테니 면전에서 펼치지 마시고 내가 산문을 벗어난 뒤 보십시오." 하며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했다. "어떤 경로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소문일 뿐입니다.믿지 마십시오. 미리 여기 안 오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소납의 요구조건을 받아주면 오겠습니다.

소납은 신문에 쓴 데로 일체 **비불교적인 것 (사주, 부적, 삼재기도, 입시기도, 승진기도, 인등, 평생위패, 만년위패,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108 산사순례 포함 등등...)** 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전과 조사어록에 지도원리가 다 있으니**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기존 신도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납이 와서 한 달이 지나면 아마 10%도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단 1명이 남는다 치면 스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제대로 된 불자가 부처님 진리의 바른 말씀 (금강경에서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를 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1명을 제외하고 머리 숫자에 불과한 그들은 정법을 무시하고 샤머니즘에 길들여졌기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1달 생각할 여유를 주고 산문을 나섰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농번기에 추수를 해서 알맹이와 쭉정이를 골라내고 저 할 때 바람을 이용했다.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다.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알맹이이다. 그 알맹이가 또 싹을 틔운다. 부처님의 바른 성품이 씨앗을 틔우듯이...

그래서 알만한 스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들이 오게 해서 점차적으로 부처님 교설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영험, 신비 등을 조장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 작금에 와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만들고 말았다.

여기는 전국에서 환우들이 주로 온다. 올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꼭 떼어오라고 한다. 현대 의학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시한부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상담 시 꼭 묻는 것이 있다. 어느 종교든 상관없이 얼마나 바르게 신행활동을 했는지 물을 때 부적, 삼재기도, 삼재풀이 인등... 등을 꼭 물으면 "스님! 그런 것 안하는 절이 있습니까?" 하며 오히려 나에게 반문을 한다. "여기 이 스님이 있는 연등사는 절대 그런 것 하지 않는다." 고 하면 의아해 하며 놀란다. 그러면서 "그럼, 절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며 도리어 걱정을 한다. "그럼 삼재풀이, 삼재기도는 당연히 했겠고 그에 따른 부적을 집에 붙여 놓고 본인도 가지고 있고, 지금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 손주, 손녀까지도 소지하고 있겠네요."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값을 얼마나 지불했어요?" 하니 "그것까지도 얘기해야 됩니까?" 한다. 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금액은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험하고 있기에 상상에 맡긴다. 또 기도시 ○○절, ○○ 스님, ○○ 법사가 조상을 들먹이고 환우를 핑계로 천도재와 구병시식을 몇 번 했으며, 그에 따른 재비를 얼마나 지불했고, 어떤 기도를 하라해서 했고, 현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등등을 자세히 묻는다. "그렇게 해서 나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도 여기까지 올 정도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위대한 부처님을 모시고 기만행위를 했는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지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들은 오늘도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물었다. "그 절 스님이 무엇이 삼재라고 합니까?" 하니 "들삼재가 ○○○ 띠고, 눌삼재가 ○ ○○ 띠고, 날삼재가 ○○○띠래요." 하고 글자 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듣고 있는 내가 놀랄 지경이다. 아니 이럴 수가? 대부분 경전에 대해서 물으면 벙어리인양 가만히 있는데... "그럼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삼재를 말씀하셨는데 맞는지 한번 봅시다." (참고로 이 불자가 불교대학 ○○기 라나?...) 불교사전을 펴서 삼재(三災)를 찾아 제목과 내용을 읽게 했다. 내용은 **겁 말에 일어나는 세 가지 재해로 소삼재 (도병재, 질병재, 기근재) 와 대삼재 (수재, 화재, 풍재)가 있다...** 생략

"좀 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것과 책(사전)을 보고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조용히 답을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입춘 때 주 메뉴는 물어보나마나 삼재풀이, 삼재기도 라고 하는데, 백중날은 백중법문을 하는데 **입춘 때는 왜 삼재법문을 하지 않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삼재법문을 하는 데가 없고 일반법문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연등사는 해마다 입춘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연 재앙인 삼재(대삼재, 소삼재) 법문을 하고 있다.** 금년 엄청난 폭염을 겪었지만 해가 갈수록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심화될 것이다.

어느 과학자가 십년 후에는 50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빚어진 지구 재앙인 것이고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미리 삼재라고 알려 주셨던 것이다.

경전과 조사어록 어디에서 밖으로 부처를 찾으라 했는가? 지금 각 사찰이 부처 찾는다고 연례행사로 108 산사순례,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하고 있다. 또 물고기 방생도 역시 연례행사처럼 꼭 하고 있으니...

"부처 찾는 일은 밖으로 제발 쫓아다니지 말고 내 안으로 찾아라."고 어록마다 구구절절이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바깥으로 다니고 싶으면 내 고향 부모, 형제들 찾아뵙고 인사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아니면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 방생을 위해 병원을 찾든지 내 이웃을 찾아 여행 경비 등으로 수술비가 없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자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그들의 말벗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인해 괴롭고, 슬프고 한 것이지 물고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라!**사람을 살려야 하는지, 물고기를 살려야 하는지...** 정말 웃을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문하는 크고 작은 스님이나 법사를 보기 힘들다. 초청받은 법사가 이런 법문할 수 없는 것은 **임제록에서 〈만약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는 새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날까봐 ~〉** 운운하는 글이 있다.

[사례 4 조현병 -- ○○스님]

미리 전화가 왔고, 정해진 날에 스님 2분과 나이가 드신 노보살님이 같이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스님 2분 중 한 분은 그 스님의 상좌라 한다. 선뜻 명함을 내밀길래 받아서 찬찬히 보니 큰 절 ○○스님이라 굵직한 직함들이 많이도 있었다. "스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니 본인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이 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고 물으니 시간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 "스님!이 스님의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하고 말을 시작했다. "왜 병명도 없이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껏 출가해서 어떤 수행을 어떻게 했길래 늙으막에 병명도 없는 마구니가 들어앉아서 주인 노릇을 합니까?" 하니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 소납이 어떻게 해 주길 바랍니까?"하니 "안 아프게만 해 주면 된다." 고... "안 아프게 해주면 남은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소납보다는 연륜이 좀 많으신데 여기에 오기 까지는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소납이 해결사는 아니지만 스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스님 정도면 소납의 제안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 되었을 시 기도를 통해 안 아프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큰 절에서 부처님 바른 교지대로 모든 것을 지도 원리로 삼아 이행하고 실천합니까? 그렇다고 하길래 "그럼 내 물증을 제시 할테니 보십시오. 본 납자는 여기 오시는 분들 기도 시 집기도 까지 가서 종전까지 다녔던 사찰의 모든 기도 안내문, 권선문, 부적 등등...을 다 걷어 와서 부적은 불태우고 권선문이나 기도 안내문 등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신도들에게 보냈던 안내문과 여러 종류의 등 (재수대통등, 소원성취등, 사업성취등, 삼재팔난등, 수능합격기도등) 권선문과, 또 물고기 방생 안내문을 보여주었다. "분명 스님이 계신 절이 맞죠? 그리고 신비한 ○○ 가 있다고 선전하며 그곳에 관광차로 노보살님들을 시도 때도 없이 오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능엄경과 달마어록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불교는 절대 요행이 아닙니다. 지금 가셔서 대중의 공의를 모으셔서 오늘 나열한 이런 것들을 멈추시고, 소납에게 통보하십시오.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확인 후 날자를 잡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기다렸으나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정말 서글픈 일이다.

◆ 소납은 초파일을 비롯해 큰 행사 시 신도님들에게 꼭 묻는 것이 하나 있다. 통칭 염라대왕이 병고로 고생하는 가족 (신랑, 부인, 아들, 딸)중 때가 되어 데리고 가고자 할 때 그 가족이 지극정성으로 한번만 살려달라고 염라대왕께 매달리자 "좋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테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 살려주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동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온다면 내 살려주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는지?...생명인지, 재산인지...**

대부분 여기 거제도에 있는 연등사라는 조그만 사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매스컴을 통해 소문만 무성한 종교집단에 재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탈진상태가 되어 반신반의하며 실제로 오는 이는 드물다. 대신 스님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장을 열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자주 알리고 쉽지만 본 사찰은 사주, 부적, 삼재, 인등, 방생, 성지순례 등등... 비불교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므로 이 지면을 통해 정법 불교를 알리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납은 각종 환우기도 시 신도님들과 더불어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한다. 특별한 환우(조현병 환자)는 상태에 따라 관전만 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같이 한다.신도님들도 그런 장면을 보아야 **삿된 곳에 쫓아다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다.** 분명 불자들도 눈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도 보여라 했다.정법을 지켜내기 위해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 신도님들은 가지 가지 많이도 봤다.

이제 말로만 하는 정법보다는 실천하는 정법인연을 맺읍시다!

불교계최초 즉문즉설안내

내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	2018. 10. 7 (일) 오전 10시
장소	연등사 대웅전
전화	055-633-6555
참가자격	누구나

- 당일은 개인 면담은 안 되고 학장 스님과 협의 요망.
- 앞으로는 재정이 허락 된다면 스님들 조현병 사례를 쓰고자 한다.

기도 동참하신 일부 신도님 연락처

김○○	010-2526-4365
박○○	010-4807-6932
박○○	010-9707-4808
윤○○	010-6786-7495
선현	010-3143-5302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내)
TEL. 055)633-6555